이제는 '주인공 이문식'

드라마 주인공이 이문식이다? 단박에 "어떤 역할이길래?"하는 되물음이 돌아온다.

기대도 한 순간, 나이 서른여덟에 이룬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노총각 박달재 역이라는 설명에 김빠진 웃음부터 나오지만 이문식이 '딱'이라는 생각도 함께 든다.

오는 29일 첫 방송될 SBS 새 월화드라마 '101번째 프러포즈'(극본 윤영미, 연출 장태유)에서 이문식은 처음으로 드라마 주연을 맡았다. 게다가 멜로도 처음.

"드라마를 처음하는 건 아니지만 주연에, 멜로는 처음이에요. 박달재 역할이 아무래도 제 외모나 제가 살아온 인생하고 비슷해서 이런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촬영하다 보면 박달재와 딱이라고 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은 소린 아니죠. 하하…"

SBS 드라마 '101번째 프러포즈'
노총각 박달재 역 맡아 첫 주연
"제가 살아온 인생과 너무 비슷"

평범하다 못해 보잘 것 없는 캐릭터지만 이문식에게 어쩌면 박달재 역은 대중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릴 기회이기도 하다. 수많은 단역과 조연을 거쳐 이제 스크린에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이름과 얼굴이 매칭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

방송에는 그다지 얼굴을 비추지 않던 터라 "드라마 주연을 결정한 데는 대중화 전략도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문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을 내젓는다.

"전략이요? 저 TV도 잘 안봐요. 볼 시간이 없어서 뉴스나 스포츠만 보죠. 영화하던 분들이 방송하는 게 그저 '하나보다' 정도지 추세라고 생각은 안해요. 시골 출신이라 전략이나 그런 건 없어요."

기존에 주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코믹한 이미지가 강하다. 뭐든지 완벽하게 갖춘 것만 같은 한수정(박선영) 아나운서와 사랑을 그려가면서 멜로에 도전하지만 기본적인 캐릭터는 좌충우돌 사고연발이다.

"시나리오가 다 코믹만 들어오고 멜로나 느와르 이런 걸 안시켜줘요(웃음). 코믹 연기가 명명하기 나름이지 연기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코미디 그만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거 하라는데 조급하진 않아요. 관객은 식상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기호에만 맞춰갈 수는 없죠."

인터뷰 중 이문식은 첩첩산중과 다름없는 시골에서 나서 한양대 연극영화과에 입학한 계기며, 1천만원만 받으면서 영화 일을 할 수 있기를 꿈꾸던 힘든 시절을

몇분간 가만히 털어놓는다.그리고는 예의 그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한다.

"지금은 연극할 때보다 엄청 많이 받아요. 전에는 2천원에 라면 파는 집은 비싸서 못 들어갔는데 이젠 술값도 낼 수 있죠."

하회탈 같은 친근한 웃음에 밀항까지 상상하던 어려운 시절이 묻어난다. 인터뷰 내내 웃음을 잃지 않던 이문식이 말미에 정색을 하고 말한다.

"예전에 드라마 '다모' 했었는데 최근에 '다모' 폐인들이 '초심'이라고 적힌 열쇠고리를 주더라고요.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고 그런 배우가 되지 말아야죠."

김희선 조선시대 기생 변신 박지윤

MBC 24부작 퓨전사극 '해어화' 캐스팅

탤런트 김희선과 가수 박지윤이 드라마에서 조선시대 기생으로 변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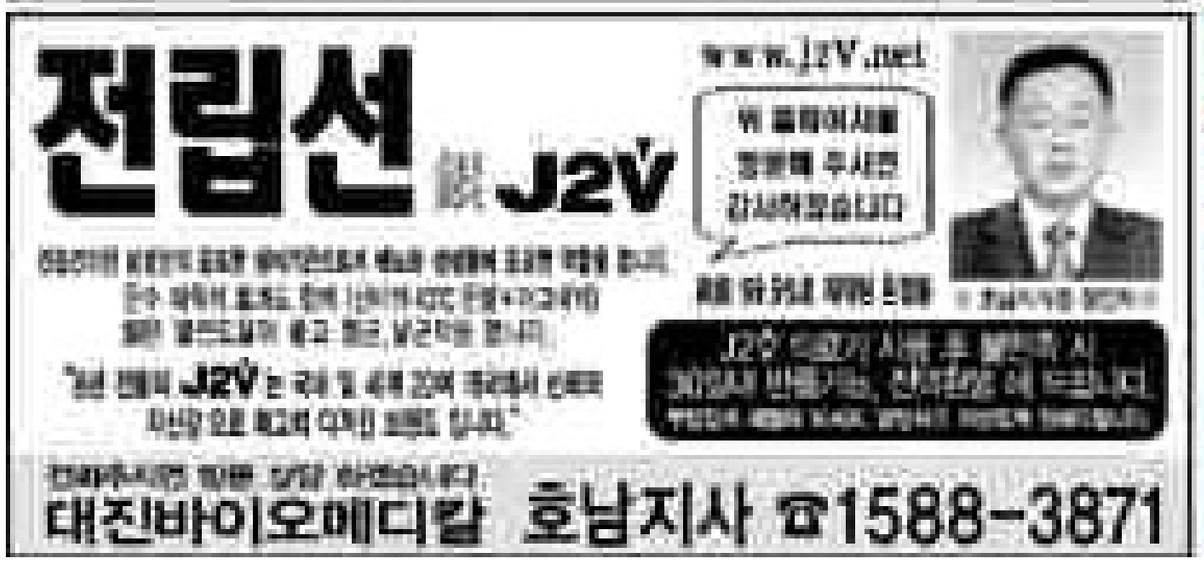
㈜스타맥스는 지난 23일 "김희선과 박지윤을 내년 초 MBC 방송 예정인 24부작 퓨전사극 '해어화(解語花)'(극본 김성희)에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해어화'는 4명의 여주인공이 '예기원'이라는 기생학교에 들어가 조선 최고의 일패(一牌) 기생으로 거듭나는 성공기를 그린 드라마. 소연 역의 김희선은 역모에 휘말려 죽은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 위해, 은향 역의 박지윤은 소연의 몸종으로 자라면서 가난과 천한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 각각 예기원에 입문한다.

'해어화'는 말을 이해하는 꽃이란 뜻으로 미인을 달리 부르는 말. 제대로 교육받아 춤, 소리에 능하고 교양도 높았던 일패 기생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스타맥스 측은 "진정한 예술인 부류였던 일패 기생의 삶을 재조명해 전통문화의 한 맥으로 이어가고자 한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주말 극장가

영 화	상영극장
호로비츠를 위하여 호로비츠와 같은 위대한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변두리에서 피아노 학원 선생을 하고 있는 김지수(엄정화)는 우연히 절대음감을 가진 천재소년 경민(신의재)을 만나게 된다.	롯데, 메가박스, 밀리오레, 제일,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짝패 절친한 친구의 갑작스런 죽음을 파헤치는 태수(정두홍)와 석환(류승완)의 리얼 액션이 펼쳐진다.	롯데, 메가박스, 밀리오레, 제일,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생 날선생 지각과 땡땡이를 밥먹듯 하는 낙하산 교사 주호(박건형)는 교사의 본분에 충실한 '학생부의 카리스마' 윤소주(김효진) 선생과 사사건건 부딪친다.	롯데, 메가박스, 제일, 무등,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행운을 돌려줘 지상 최고의 운 없는 남자 제이크(크리스 파인) 와의 키스 한 번으로 모든 행운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애쉴리(린제이 로한)는 다시 한번 키스를 통해 빼앗긴 행운을 되찾으려 한다.	메가박스, 무등, 엔터, 콜롬버스(하남), CGV(상무·첨단),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다빈치 코드 댄브라운의 소설을 영화화했다. 살인 누명을 쓴 랭던(톰 행크스)과 소피(오드리 도투)는 시시각각 좁혀오는 경찰조직과 파슈 국장(장 르노)의 숨가쁜 포위망을 피하면서, 화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들 속에 숨겨진 비밀을 추적한다.	롯데, 메가박스, 밀리오레, 무등, 엔터, 제일,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하미,목포 메가라인,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씨너스
가족의 탄생 누가 보면 연인 사이라 오해할 만큼 다정한, 친구 같고 애인 같은 남매 미라(문소리)와 형철(엄태웅). 인생이 자유로운 형철은 연상녀(고두심)와 함께 5년만에 누나 미라를 찾아온다.	롯데, 메가박스, 제일, 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순천 롯데
미션 임파서블3 톰크루즈 주연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임무를 수행하던 이단 헌트(톰 크루즈)는 작전 수행중 자신의 아내가 납치당하는 위기에 처한다.	롯데, 메가박스,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하미, 목포 CGV, 목포 메가라인,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헐리우드
맨발의 기봉이 어릴때 병을 앓아 지능이 8세에서 멈춘 40세의 기봉이. 효심이 지극한 그는 어머니에게 틀니를 해주기 위해 마라톤에 도전하지만 곧 그의 심장이 좋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밀리오레, 제일,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첨단), 순천 롯데, 순천

光州日報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501-711)
회장 許宰晧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대표전화 2200-500·222-8111 (구독신청·배달안내)
홈페이지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팩스 222-4918 총무부 2200-511
편집부 2200-629 〈팩스 222-8005〉
정치부 2200-616 광고국 2200-521
경제부 2200-617 〈팩스 227-9500〉
사회1부 2200-618 디자인 2200-536
〈팩스 222-4267〉 사업2부 2200-552
사회2부 2200-619 문화사업국 2200-541
〈팩스 227-0118〉 〈팩스 222-0195〉
문화생활부 2200-626 판매부 2200-551
여론매체부 2200-628 〈팩스 227-9500〉
체육팀 2200-627 서울지사
사진부 2200-690 02-773-9331
조사부 2200-570 〈팩스 02-773-9335〉
구독료 월 8.00원 1부 400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